

# 亞細亞 太平洋 地域 圖書館 國際會議

May 28~30, 1969

아카데미 하우스



## 開 會 式 順

- 開 會 宣 言.....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 開 會 辭.....姜 周 鎮 (韓國圖書館協會長)
- 致 辭.....丁 一 權 (大韓民國 國務總理)
- 歡 迎 辭.....洪 鍾 哲 (大韓民國 文教部長官)
- 閉 會 宣 言.....崔 根 滿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 치 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 각국 대표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무릇 도서관은 한 나라의 산업 발전이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더우기 오늘 날 발전도상국가들의 근대화 노력에 있어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실로 막중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도서관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도서관의 개발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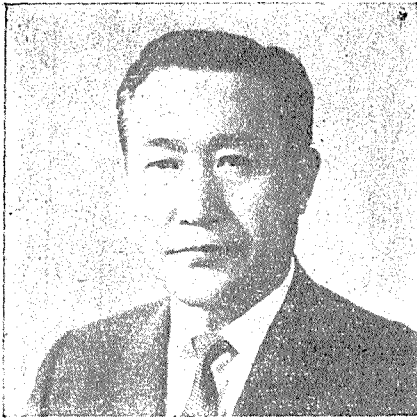
모쪼록 이 회의가 우리들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동하는 자리가 되어 보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969년 5월 28일

대한민국국무총리

정 일 권

## 환 영 사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의 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뜻 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 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그 동안 인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먼 여로의 불편을 무릅쓰고 이처럼 우리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내한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 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가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대화의 광장으로서 새 아시아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하게 될 것을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의 도서관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 생활 분야에 이르기 까지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과 활동 없이는 우리의 교양이나 생활 문화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인류 지혜의 보고이며 전파자이며, 문화의 파수자이며, 창조의 샘터로서 그 기능은 실로 막중한 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보존이나 정리에 그치는 서고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그 효율적인 운용으로 국가 개발과 인류문화 발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중요 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아직도 시설면은 물론,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한데다가 이것을 잘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이상으로 하여 기대했던 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장소나 시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는 근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당면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창의적인 연구와 전진적 개발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적인 시점에 처하여 도서관의 선용과 발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상호간의 개발에 공헌하도록 공동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인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 도서관의 「비전」을 발전하고 「지혜의 아시아」, 「번영의 아시아」를 건설하는 데 크게 공헌했기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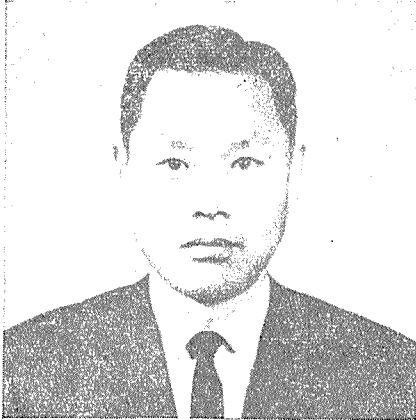
아무쪼록 3일간에 걸친 이 회의의 알찬 성과를 기대하면서 각국 대표 여러분의 건승을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69년 5월 28일

문 교 부 장 관

홍 종 철

## 開 會 辭



內外 貴賓 여러분, 그리고 各國 代表 여러분!

오늘 韓國圖書館協會가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 圖書館의 役割이란 主題로 亞細亞 太平洋 地域 圖書館 國際會議를 開催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美國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圖書館 發展에 獻身하고 계신 代表 여러분이 이 會議에 參席하고 또한 이 會議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韓國을 訪問하여 주신데 대하여 衷心으로 환영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亞細亞 太平洋 地域 諸國은 넓기도 하려니와 또한 떨어져 있기 때문에 經濟的 與件이 다르며 言語와 風俗이 다르고 또 各國은 各己 다른 傳統과 文化的 遺産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여러 面에 걸쳐서 相互 理解와 信賴로서 平和스럽고도 繁榮된 亞細亞 太平洋 地域의 建設을 위해

共同의 努力과 協助를 하여야 할 段階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開發途上에 있어서의 各國은 圖書館이 國家發展에 重大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일찍이 認識하고 圖書館 發展을 위한 相互理解와 意見을 交換하는 모임을 過去에도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마다 이러한 會合이 各國內의 文化交流와 圖書館 發展에 至대한 보탬이 되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即, 1958年 유네스코와 比律賓 政府가 共同으로 主催한 아시아 太平洋 地域 諸國의 國立 圖書館 發展을 위한 세미나가, 그리고 1964年 2月 3일부터 15일까지에는 比律賓 首都 마니라에서 18個國 國立 圖書館 代表들이 모인 가운데 亞細亞 太平洋 地域 國立圖書館長 會議가 開催된 바 있었고 또 1966年 5月 2일부터 5月 6일까지 5日間에 하와이 大學 東西文化센터 主催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司書職의 訓練」이란 主題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큰 成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韓國圖書館協會가 開催하는 금번 會議는 亞細亞 太平洋 地域의 圖書館 發展을 위한 廣汎한 問題를 다루는 國際會議인 만큼 從前의 會議와는 약간 다른 性格을 지니고 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圖書館의 發展은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一國의 圖書館의 發展 程度는 國家 全般的인 發展 水準을 가르키는 指標입니다.

특히 近代化에 뒤늦은 亞細亞 太平洋 地域의 開發途上에 있는 諸國의 境遇에 있어서는 圖書館은 國家發展을 效果的으로 促進시키는 中樞的 機關으로서 役割을 해야 하는 무거운 使命을 띠고 있습니다. 圖書館이 끊임없이 生成되는 知識, 情報의 迅速한 處理를 하고 이를 提供하는 圖書館의 機動性있는 奉仕活動없이 近代化를 指向하는 國家의 發展은 한갓 虛妄한 것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오늘의 이 모임이야말로 참으로 뜻 깊은 모임이라고 거듭 強調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後孫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그들이 물을 때 우리는 훌륭한 圖書館을 만들고 이를 잘 運營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뜻 깊은 國際會議를 통하여 各國 間의 紐帶와 協助가 強化되고 各國 圖書館이 發展하여 갈 方向에 대한 眞摯한 論議와 意見의 交換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摸索된 圖書館 發展策이 各國의 圖書館 發展 育成에 寄與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平和롭고도 繁榮된 아시아 太平洋 地域의 建設은 各國의 圖書館 發展에 달려 있다고 本人은 確信하오며 이 會議가 盛大히 開催될 수 있게끔 참석해 주신 內外 貴賓 여러분과 各國 代表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빕니다.

끝으로 本 會議 開催를 위해 物心 兩面으로 도와 주신 文教部, 文化公報部, 美國大使館에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69年 5月 28日

韓國 圖書館 協會長

姜 周 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

결 의 문

자유를 사랑하는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비올빈, 싱가포르, 태국, 미국, 월남,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10 개국의 국가 대표 및 도서관 전문인들이 대한민국 서울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1969년 5월 28일 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서관과 국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우리들은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그리고 도서관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며 보다 더 기본적인 도구라는 결론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반드시 도서관을 국가 자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각국에 현존하는 자원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원 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방 공공 도서관 학교 및 대학도서관으로 부터 과학 및 기술도서관 그리고 국립 도서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도서관이 국가의 현대화에 공헌하는 국가 정보망에 있어서의 그들이 맡은 역할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의 예치장소가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의 전달 및 보급을 촉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효율적 도서관 기능을 위한 도서의 중요성과 도서관 봉사와 출판계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도서관 운영은 장서 및 시설과 동일하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부응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적 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서관인이 공공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육자와 동등한 전문직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책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지방 및 국가 발전의 중요한 관권으로서의 충분하고 계속적인 재정 원조를 마련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서관 제도가 정보 조직이 성장하는 국제적 조직망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항으로서의 첫 과정으로서 각국 도서관협회의 대표자들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도서관협회연맹을 통한 지역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각국 대표는 이러한 결의가 각기 그들 정부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국 대표 및 참가자는 한국 문교부, 미국 공보원 및 한국도서관협회가 이 뜻있는 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69년 5월 3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 대표 일동

## THE ASIA-PACIFIC CONFERENCE ON LIBRARIES AND NATIONAL DEVELOPMENT

### RESOLUTION

The representatives and professional librarians from the freedom loving nations in the Asia and Pacific area—Australia, the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Japan,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public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gathered at the Academy House, Seoul, Korea to discuss the theme “Libraries and National Development” from May 28 to 30, 1969.

At this conference, what libraries can contribute toward moderniz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riously considered. Reaffirming the important role of libraries in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it has been resolved.

That the government must recognize libraries as a national resource.

That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existing resources, a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Resources and Needs be established in each member country.

That all libraries from public, school and university librarie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libraries and national libraries be recognized for the role they play in a national network of information systems contributing to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

That in a modern society the library is not just a repository of books but rather an agency of communication, dissemination and stimulation of knowledge and ideas.

That the government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nted materials to the effective function of libraries and the indispensable relations between library services and the local publishing industry.

That operation of libraries is as important as collections and facilities.

That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operation of libraries be provided at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high responsibility libraries must carry in our society, and that librarians be recognized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on a status equal to other educators.

That the government must recognize these responsibilities and pass legislation to provide adequate and continuing financial support as an important key to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at the library systems of the area be integrated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libraries, and that as a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various national library associations be urged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a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of the Asia and Pacific area.

That each delegation is urged to reflect these resolutions to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implementation.

We the delegates and participants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and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for hosting this significant conference.